

# 1960년대 중반 북한 경제위기 양상과 혁명전통의 유일성 확립: 개혁의 배경과 갑산파 숙청의 배경을 중심으로

조우찬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 | 국문요약 |

1960년대 중반에 박금철을 제거한 숙청의 본질은 김일성으로의 고도의 권력 집중화를 위한 것이었다. 한편, 박금철은 이 무렵에 나타난 경제적 무질서와 혼란,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련의 리베르만 방식을 부분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현장에 적용한 경제 조치는 뒤늦게 수정주의의 유포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수정주의는 박금철과 갑산파를 제거하기 위한 정략적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혁명전통의 유일성에 찬동하지 않던 갑산파는 ‘반당수정주의자’ 규정되었다.

박금철에 대한 숙청은 중국의 류사오치(劉少奇)처럼 실용적인 경제 방안을 시도했다가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노선투쟁 혹은 권력투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상황은 종결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예 등 전 영역에서 혁명전통의 유일성이 유례없이 강화되는 추세에 돌입하였다. 김일성은 경제 혼란의 와중에서 개혁에 대한 배경과 함께 박금철과 갑산파에 대해서 ‘반당수정주의자’라는 굴레를 씌워 제거하였다. 이로써 혁명전통의 유일성 확립과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

**주제어** | 박금철, 갑산파 숙청, 혁명전통의 다원화 시도, 계획경제, 리베르만 방식, 수정주의, 혁명전통의 유일성

## 1. 머리말

갑산파는 박금철을 주축으로 하여 형성된 정치세력으로 1930년대 중반 함남 갑산에서 박금철과 함께 한인민족해방동맹에서 항일활동을 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은 ‘리송운’, 김알룡, 허학송 등과 함께 조국광복회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리효순’, 허석선 등이 갑산파의 핵심 인물들이었다(조우찬 2016a, 90-91). 정치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박금철은 1950년대에 발생한 일련의 반종파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헌영과 최창익 등 김일성의 정적들을 공격하는데 앞장섰고 박일우와 방호산의 숙청에 관여하였다. 1950년 중반에 그는 이미 정치적으로 급부상해 있었다(조우찬 2016a, 122-123).

박금철과 갑산파는 1960년대 중반의 경제 혼란 속에서 실험적인 조치를 실시하였다. 소련에서 전개되고 있던 경제개혁 조치인 리베르만 방식을 도입하여 비공식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수정주의자들’에게는 경제 이외의 영역들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혐의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박금철의 개혁적 시도에 대한 비난은 갑산파 숙청의 빌미로 이용된 측면이 강했다. 당시 상황에서 혁명전통 다원화를 시도한 박금철에 대해서 ‘반당수정주의자’로 낙인을 찍은 것은 유일지도성에 대한 도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김일성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위기와 혁명전통 유일성 확립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다. 북한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은 개혁에 대한 배격과 권력의 집중으로 전개되었다. 김일성의 권력집중을 위한 혁명전통의 유일성의 강화가 북한 사회에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혁명전통과 항일무장투쟁이 크게 대두되기 이전인 1966년 하반기에는 비서제를 도입한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김일성에 의해서 촉발된 문예부문에서 발생한 혁명전통 논쟁처럼 김일성의 유일지도성 확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혁명전통 유일성에 대한 부각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의 강조가 전 영역에 전파되었다.

1960년대 중반의 북한 경제와 갑산파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갑산파 숙청의 본질이 혁명전통의 유일성 확립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 먼저, 1960년대 북한 경제의 운용 방식의 특징이 관료적 조정기계의 강화에 있었고 갑산파의 숙청에 대해서 경제발전 방향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이정철 2002a, 2002b)가 있으며 갑산파의 실용주의적 노선이 경제 침체 속에 일정한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유추하면서 박금철이라는 특정 개인의 개별적 지시가 당적 지도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김일성의 권위를 훼손시켰다고 본 연구가 있다(이태섭 2001a, 2001b). 이 외에 북한 체제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경제발전전략과 산업화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김연철 1996, 2001; 이승현 1997; 김근식 1999; 이성봉 1999).

선행연구에서는 당시 북한에서 치열한 노선투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와 아울러 당시 북한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과 갑산파 숙청을 결부시켜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혁명전통 유일성 확립이라는 권력구조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박금철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부의 옹호에 대해서 당시 박금철의 권위와 비교해 볼 때, 엄밀하게 경제노선에 대한 지지인지 아니면 박금철 개인에 대한 찬동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당시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에 대해서도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 구축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역학관계에 변화를 조성하였다. 이 무렵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은 북한 군부의 영향력 강화, 군사비 증액, 베트남전 지원 및 대남혁명노선 추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조우찬 2017, 207).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박금철의 정치적 위상을 파쇄하기 위한 김일성의 전면적인 공세 과정에서 나타난 주된 비판의 하나로써 수정주의자라는 비

난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김일성은 경제적 개혁의 배경을 통해서 권력을 자신에게 강력하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반당수정주정주의자들’을 활용했다는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당시 북한에서 제기된 리베르만 방식에 대한 비판의 본질이 혁명전통의 유일성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박금철을 제거하고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 류사오치(劉少奇)처럼 ‘반당수정주의자’로 내몰기 위한 정략적 측면이 컸다는 점, 둘째, 갑산파에 대해서 수정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권력 남용과 개인 비리에 관해서 집중적인 비난이 이루어진 점, 마지막으로 당시 발생한 경제위기조차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김일성의 권력집중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 방식과 1950년대 계획경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한다. 당시 경제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북한 경제의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1960년대 중반 북한 경제위기와 소련의 경제개혁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김일성은 리베르만 방식을 수정주의로 규정하고 갑산파를 수정주의자로 몰아세웠다. 제4장은 개혁에 대한 배경과 혁명전통의 유일성에 대해서 고찰한다. 갑산파 숙청 후에 북한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개인우상화를 위한 사상적 일색화에 골몰해 나갔다.

## II. 북한의 경제발전 방식과 1950년대 계획경제의 메커니즘

### 1. 북한 경제발전 방식의 특징

북한의 경제발전노선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대별된다. 첫째, 북한 정권 수립 이후부터 중앙집중적인 계획화와 중화학공업 우선 발전, 농업의 집단화라는 스탈린의 경제노선을 추종하고 답습한 것이었다. 전후복구기간이라는 점도 있었

으나 1955년도 북한의 예산에서 공업부문의 기본 투자액 가운데 중공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80%에 육박하였다(김상학 1955, 63). 북한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소련의 일국사회주의 노선을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으로 명명하여 채택한 것이었다(박형준·김태영 1994, 119-120). 그러나 북한의 경제자립노선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북한은 이미 초기부터 불균형적인 산업 구조가 심각하였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은 국내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였다. 이와 함께 대내지향적인 공업정책 방향과 제한된 무역 상황, 외채 증가, 양적 성장에 치중하는 외연적 성장전략은 북한 경제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현욱 1993, 124-130).

북한 경제의 내적 한계의 원인은 원자재 부족에 있었다. 생산 설비는 원자재 부족으로 설비 가동률이 저하되었다. 개별 기업들은 할당된 국가 계획 과제 달성에만 집중하여 계획 수립에서 생산 능력을 과소하여 허위로 보고하고 자원 할당은 더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효율성 증대와 원가 절감과 수익성, 노동생산성 증대보다 할당된 과제 달성에 매달렸다. 대중운동의 속도 경쟁은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낭비를 가중시켰다. 그럼에도 천리마운동은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낭비를 상쇄시키고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바탕이었다(이태섭 2009, 134-136).

점차적으로 저투자와 고성장을 추구하는 대중동원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관료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발전전략, 즉 코르나이(1992, 197)가 설명한 속도를 중시하며 위로부터 강요되는 “강제된 성장(Forced Growth)”의 동력이 상실된 것이다. 한편, 당시 북한이 중공업을 우선하고 양적 성장 일변도의 경제 발전 속에서 특히, 철강, 화학공업에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강호제 2007, 190, 201). 1950년대 말의 북한의 대외경제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1956년부터 1959년까지 4년간 연평균 35.4%의 대외무역 증가율을 나타냈다(이성봉 1999, 98). 그러나 북한의 산업은 여전히 중공업에 편향된 상태였고 비효율적이고 불균형적인 투자의 악순환이 이어졌다(오승렬 2002, 13).

## 2. 1950년대 북한 계획경제의 메커니즘

1957년에 시작된 북한의 제1차 5개년 계획 속에는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무계획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경제위기의 원인들이 잠재되어 있던 상황에서 계획 달성을 최우선하는 상황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중앙과 현장에서의 정보왜곡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노동력 동원을 바탕으로 속도를 중시하고 혁신을 강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고 질적 성장보다 양적 성장에 치중하게 되어 단기간에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다. 코르나이(1992, 183-184)의 설명에 의하면 투입을 통해 산출을 증대시키는 외연적 성장과 투입의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내포적 성장 중에서 전자가 사회주의체제의 경제 팽창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의 성과가 내용면에서 왜곡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외연적 성장이 지닌 속성인 양적 확대의 효과는 더 나아가 정보 왜곡이 발생한 가운데 양적 결과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1961년에 제4차 당대회에서 박금철은 1956년에 개최된 제3차 당대회에서 자신이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기적이라고 스스로 강조했던 것처럼 1960년에 들어서도 그러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 회의에서 그는 전후 인민경제 3개년 계획을 수행하면서 제1차 5개년 계획을 결정했던 1956년 12월에 열린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강조하였다(국토통일원 1980, 168-171). 그 이유는 1956년을 기해서 북한의 경제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기 위함이었다. 북한의 3개년 계획은 경제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전쟁 후의 북한은 전쟁 전과 비교하여 전력 생산은 26%, 화학 생산은 22%, 연료 생산과 금속 생산은 각각 11%, 10%로 하락해 있었다. 그리고 교통 기반시설인 철도의 70%, 선박의 85%가 손상되었다(Shen and Xia 2012, 2).

3개년 계획 기간 동안 북한의 대외원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1954년에 중국은 북한에 총 30억 루블(미화 7억5천만 달러) 이상을 무상원조를

하였고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은 22억 루블(미화 5억5천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당시 중국의 원조 규모는 1954년 중국 전체 예산의 3.4%에 해당하였다(Shen and Xia 2012, 7). 경제 복구를 위한 3개년 계획이 추진된 1954년부터 1956년 동안에 북한의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외원조였다. 대외원조의 비중은 3년간 연평균 65.4%에 달했고 1956년에는 74.6%를 차지하였다. 북한의 전후 복구 사업은 이러한 해외 원조에 힘입어 빠르게 복구될 수 있었다. 북한은 해외 원조가 급감하자 외부와의 협력과 분업 대신에 내부적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하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김근식 1999, 85-87).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박금철이 새삼 1956년에 열린 회의에 대해서 ‘군중 로선의 생활력을 시위하는 역사적인 회의’였다고 상기시킨 것은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제1차 5개년 계획에 이어서 제1차 7개년 계획에서도 경제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국토통일원 1980, 178). 그러나 1930년대 소련이 그러했던 것처럼 1950년대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만든 주원인이었다. 북한 경제는 중공업 발전을 우선시하면서 투입과 공급의 부족이 발생하였다. 경제국방 병진노선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지 않은 군수산업과 중공업을 우선함에 따라 경제적 침체가 초래되는 원인이 되었다(이영훈 2003, 308-309).

북한 내부에서도 속도와 균형 문제에 대해서 어느 일방에 편향된 경향을 경계하고 속도일변도의 발전 추구를 지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핵심은 균형성을 위하여 경제 발전의 속도를 늦추려는 소극성과 함께 보수성의 편향에 대해서 비판하였다(리석심 1961, 8). 북한 당국은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가운데 균형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었다. 1961년 3월에 열린 전원회의는 향후 2-3년 내에 방직, 일용품, 식품 가공, 화학섬유, 합성수지, 농산물, 자연약재 등 경공업 제품의 질과 종류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산리 작업반 운동의 관철을 주장했다(조선로

동당출판사 1961, 178). 그러나 당면한 현실과 유리된 목표 설정과 구체성이 결여된 경제 계획은 경공 발전의 부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했다.

〈표 1〉 제1차 5개년 계획기간 공업 생산 증가율

| 구 분      | 목표  | 실적    |       |       |
|----------|-----|-------|-------|-------|
|          |     | 1957년 | 1958년 | 1959년 |
| 공업생산 증가율 | 22% | 44%   | 42%   | 53%   |

출처: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II』(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152, 797.

위 <표 1>에서처럼 1957년에서 1959년 사이에 북한은 계획한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올렸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 1950년대처럼 혁명을 강조하고 사상을 앞세운 북한의 경제구호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북한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천리마운동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속도를 중시하는 집단적 노동경쟁운동이었고 사상개조운동이었다(김연철 1996, 229-237). 북한의 초기 산업화과정의 외연적 성장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도출해 내는데 일정 부분 성공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주민들의 내핍을 정치사상적으로 지탱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 혁명적 군중노선이라고 할 수 있었다(이승현 1997, 104-105).

### Ⅲ. 1960년대 중반 북한 경제위기와 소련의 경제개혁

#### 1. 북한 경제위기와 대중동원의 한계

북한 경제가 침체된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의 경제노선 방식이 한계에 봉착한

데에 있었다. 전후 복구 기간의 북한 경제는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군중동원사업을 이용하여 경제 발전의 속도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이 무렵에 이르러 생산혁신과 인민대중들에게 사상교양을 담당했던 천리마운동은 더 이상 인민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도덕적 기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양상은 경제적인 난관과 안보 위협 속에 생산 현장에서는 당 정책을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기계적인 행태와 형식주의, 무책임성, 계획 집행의 기만적 행위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이태섭 2001b, 429).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1964년과 1965년에 각각 계획의 일원화와 계획의 세부화 체계가 도입되었다. 계획의 일원화는 기존의 정부 조직인 부문별 생산 계획 조직이 아닌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의 지구계획위원회와 시, 군 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관 본위주의와 지방 조직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이정철 2002b, 70-71). 한편, 세부화 체계는 생산 활동의 모든 지표와 생산 활동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에 나타난 북한의 심각한 경제 침체와 위기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는 혁신적인 경제정책의 전개가 아니라 기존의 대중동원 방식과 속도를 강조하는 양적 성장의 답습이었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체계의 도입 배경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가 초래한 계획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생산 활동은 국가계획 속에서 포괄하고 생산가능성을 최대한 증대시켜 공업 부문에 대한 생산적 축적에 집중하는 것이었다(이성봉 1999, 119).

김일성(1968, 265-266)은 새로운 경제조치를 도입할 당시에 형식주의적 사업 작풍과 무책임성이 만연하여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가계획위원회에 대해서도 현상유지적인 소극성과 보신주의적인 경향이 팽배해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소부르주아적인 인테리 근성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계획일군들이 생산자인 노동자와 농민과 토의하며 계획을 입안해야 함에도 군중노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결여되어 혁명가적 사업작풍이 아닌 월급쟁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 2. 소련의 경제개혁, ‘리베르만 방식’

소련에서는 1960년대 초에 리베르만 방식이 제안되었고 이를 적용하는 기업의 수가 확대되어 갔다. 이 개혁안은 중앙의 권한을 축소하고 장려금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이윤을 도입하고 개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한편, 북한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는 1960년대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여전히 대중 동원에 의존하였다(연하청 1994, 82). 공화국 영웅, 노력영웅 등의 칭호는 근로자들의 열성을 고취시키고 노동력을 분발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여되어 온,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식이었다.

소련에서 경제개혁을 위한 조치는 사기업을 인정하는 신경제정책인 네프(NEP)가 레닌 시대에 도입된 바 있었다. 스탈린 시대에는 우수한 성과를 낸 노동자인 스타하노프를 따라하고 실적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스타하노프운동이 1936년부터 전개되었다. 강압적인 산업화와 집단농장인 콜호즈 등 농업집단화를 추진했던 당시에도 생산성 향상과 비능률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들에게 능률급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했다(정기방 1992, 41-42, 47-48). 한편,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1950년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하에서의 소련의 경제는 비능률에 직면하였다. 기업에서는 중앙에서 하달되는 목표나 계획과제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작업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할당되는 원자재를 적치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소비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생산계획으로 인하여 재고품이 증가하였고 관료주의가 팽배해졌다(매일경제 72/08/21).

1957년에 흐루시초프는 국민경제회의(Sovnarkhoz)를 설치하고 산업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조치는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선하여 공업부문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관할지역의 기업이 아니면 홀대하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중앙통제권을 100여개의 지역경제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분권화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중앙 부처인 노동부, 재무부, 국가계획위원회

(Gosplan)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었다.(이홍섭 1997, 41). 그러나 개별 지역의 독립성은 보장된 반면에 자급자족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의 경제가 부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정형곤 2002, 60).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코르나이(1980, 21)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불균형적인 산업구조 속에서 경제 왜곡 현상이 발생하여 경제성장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환언하면 소련 경제는 중앙집중적인 계획체제가 특징이었으나 모든 부분에서 중앙계획과 통제가 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은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 속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완벽한 중앙계획의 수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정여천 1997, 613). 중앙계획에 의존하는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 속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비합리적인 지시와 요구가 그대로 산업 현장에 하달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소련 당국은 1960년대 들어서 엄격한 계획경제와 경직성이 생산성 제고를 저해한다고 인식하였다. 이 무렵에 소비에트연방의 우크라이나공화국 동부의 중심 도시인 하리코프(Khar'kov)에 소재한 하리코프대학의 예브세이 그리고리에비치 리베르만(Evsey Grigorievich Liberman) 교수가 1962년에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공산당 기관지인 『프라우다(pravda)』에 발표한 리베르만의 논문은 몇 년 후에 본격적인 논쟁을 촉발하였다. 『계획·이윤·장려금(premium)』이라는 그의 논문은 흐루시초프 실각 이후에 중앙정부 경제담당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현장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계획경제의 틀 아래서 경영 혁신과 개혁이 이루어진 것으로 계획경제의 본질적인 성격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었다(강빈구 1966, 90-91). 당시 서구학자들은 기업 수익성 제고와 자원의 최적 배분 문제를 통한 효율성 추구 방식은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라고 평가했다(김동혁 2017, 415).

리베르만 방식은 기업의 효과적인 생산 활동 방식과 기업의 이익이 합치되도록 국가계획위원회(Gosplan)의 계획방법과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물질적

인 인센티브를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 기업경영의 틀을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리베르만방식이 수용된 배경에는 당시 소련 경제에 대해 스탈린 방식을 통한 발전이 경제와 과학기술 영역에 일정한 성취를 이루었으나 이미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와 있다고 인식한 개혁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소련 기업들의 경영책임자들은 여전히 중앙의 통제 속에 하향식 생산명령에 따라 피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상황이었다(조동호·김은영 2004, 96).

코시긴 수상에 의해 수용된 리베르만 개혁안은 자율성과 이윤이 특징이었다. 첫째, 지방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을 복원시켰다. 기존의 국가계획위원회(Gosplan)는 물론 1965년 이후에 설립된 기구인 국가가격위원회(Goskomtsen) 그리고 국가물자 및 기술공급을 담당하는 국가조달위원회(Gossnab), 국가과학기술위원회(GKNT) 등의 역할은 정책결정권을 중앙에서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중앙에서 부여한 개별기업의 의무사항을 판매량, 이윤율 등 8개로 대폭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율성은 신장되는 한편, 중앙의 통제는 8개의 의무조항을 통해서 유지되었다. 셋째, 각료회의 및 국가계획위원회(Gosplan)가 가격결정에 직접 개입하던 구조에서 새로 설립된 국가가격위원회(Goskomtsen)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가격에는 이윤이 반영되도록 하였다(이홍섭 1997, 46-49). 그러나 지역경제의 자급자족경제인 아우타르키(autarchy)화 경향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리베르만 방식은 경직된 관료주의의 폐해로 인해서 일시적인 성과에 그쳤다. 소련의 중앙집권적 경제기획제도의 틀은 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리베르만방식이 확대되는 중에도 소련 정부의 개입은 증가하였고 기업들의 자율성은 축소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 남용 문제도 발생함에 따라 1970년대에 들어서 기업들의 재량권은 더욱 줄어들었고 기업들을 하나로 묶는 생산연합체가 확대되었다.(정형곤 2002, 61-62).

## Ⅳ. 개혁에 대한 배경과 혁명전통의 유일성에 대한 지향

### 1. 갑산파의 경제방안에 대한 비판

1967년 5월에 비공개로 열린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박금철은 수정주의 경제이론을 유포하고 ‘반당수정주의자의 책동’을 주도한 주동자가 되어 있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1979, 599). 박금철의 지시로 황해제철소 등 몇몇 공장에서 가화폐제도가 현장에 도입된 점이 비판되었다. 가화폐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개인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노동자들을 돈으로 얽어매는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규정되었다. 박금철에 대한 비판은 경제발전의 속도 및 균형의 문제와 함께 당시 쟁점사항이었던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이용에 관한 문제에서 발생하였다. 가화폐제도는 날마다 노동자들에게 그날 계획수행의 정도에 따라 가짜 돈을 지불하고 월말에 가서 그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였다. 이에 대해서 자본주의적 기업 관리 제도라는 비판이 전격적으로 가해졌다(조선로동당 출판사 1999, 183-184).

북한은 1961년 12월에 김일성이 대안전기공장의 현지지도에서 제시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대만큼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지배인유일관리제는 지배인 1인에게 책임과 관리를 집중시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62년부터 도입된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아래 당적 지도의 강화와 함께 기업 관리에서 생산대중의 참여와 주체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했다. 이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천리마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각 기업소는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임금에도 격차를 두도록 하였으나 생산성 제고 효과가 현격하게 떨어졌다. 개인이기주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배격하고 노동현장의 태만과 부실한 관리를 감독, 통제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독립채산제가 오히려 중앙의 통제와 간섭을 초래하였다. 또한, 경제적 차원보다는 정치사상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비능률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나타났다(김광

수·박만수 1994, 50-51).

한편, 박금철은 당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천리마운동에 반대하여 경제발전 속도를 늦출 것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비난을 받았다(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1, 27-28).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에 포함된 검덕광산의 알맞춤이나 황해제철소의 가화폐 제도 등은 경제발전 방식에 대한 논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적 지도를 훼손한 박금철의 개별적 지시에 대해서 비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박금철에 대한 비판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김일성이 비난하고자 한 것은 박금철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수정주의 유포가 아니라, 유일지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박금철 개인의 권세와 권력 남용에 대한 것이 핵심이었다.

북한 문헌들에서는 김정일이 가장 먼저, 가화폐의 수정주의적 본질을 간파하였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킴으로써 갑산파 숙청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편집국 1968, 6).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주장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일부 연구들은 개작과 변조가 이루어지는 북한 문헌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갑산파 숙청에서 김정일이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1970년대 이후 들어서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한 영화와 혁명가극 제작을 통해서 후계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갑산파 숙청을 전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은 실상과 차이가 있다(조우찬 2017, 203-206).

한편, 소련의 리베르만 이론에 대해서 북한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177-179, 180-181).

리베르만 리론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상품화폐 관계와 가치법칙의 역할을 과대 평가하는 수정주의적 견해에 기초하고 있는 부당한 리론이며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를 거부하고 리윤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끌어들이려는 반동적인 리론이었다.---(중략)---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 잠입한 수정주의 분자들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들고 나온 ‘리벨만 리론’을 넘겨다보면서 그것을 끌어들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이 자들은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는 데 따라 증산 예비가 점점 작아진다”느니 “생산은 사회주의적으로 하고 관리는 자본주의적으로 하여야 한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류포시키면서 생산 장성 속도를 늦추려 하였으며 심지어 ‘가치법칙적용연구그룹’을 조직하여 가지고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물질적 자극을 위주로 하는 기업 관리 방법을 받아들이려고까지 하였다.---(중략)---당 안에 잠입한 반당 수정주의 분자들은 노동자들이 결의해 나선 생산계획 수자까지 줄이려 하면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는 데 제동을 걸었다. 수정주의 사상에 물젖은 어떤 자는 천리마로 달려 나가자고 하는 검덕광산에 가서 그곳 노동자들을 모아 놓고 힘들게 많이 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알맞춤하게 하라고 하면서 당에서 하라고 한 것보다 광석생산계획을 제 몇대로 절반으로 낮추어 놓았다. 반당 수정주의 분자들의 이러한 교활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검덕광산뿐 아니라 일부 다른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생산계획을 새로운 대고조의 요구에 어긋나게 낮게 세우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위에서와 같이 갑산과의 실용주의적 경제 방안은 국가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수정주의로 비난받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검덕광산에 나가서는 계획된 생산량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계획량 준수를 무시하도록 하였으며 군대에서 일당백이라는 구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과도기문제에 대해서도 김일성과는 다른 입장이었다(김정일 1992, 87). 김일성은 우경기회주의와 좌경기회주의를 비판하고 과도기에 대해서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무계급을 지향하는 단계로 규정하였다(김일성 1983, 260-265).

## 2. 북한식 紅과 專의 대결, 혁명전통의 유일성 확립

갑산파가 수정주의로 규정되며 숙청된 것은 1960년대 중국에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한 인물들이 마오쩌둥에게 수정주의자로 공격을 당하던 상황의 테자부였다. 마오쩌둥(毛澤東)은 1963년에 지방 순시에 나선데 이어 자본주의로 회귀하려는 시도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을 결정하였다(Jin 1999, 37). 이러한 중국의 상황은 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부문에서 속도의 감속을 주장한 갑산파에 대해 김일성이 수정주의자로 낙인찍은 상황과 유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갑산파에 대한 숙청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데 비해서 류사오치(劉少奇)에 대한 비난은 공개적이었고 지속적이었다. 저우언라이(周恩來)는 1965년에 마오쩌둥이 류사오치에 대한 숙청을 결정했다고 언급하였다. 류사오치는 이미 1960년대 초에 수정주의자로 낙인이 찍혔고 자아비판을 해야 했으며 마오쩌둥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Lowell 1988, 47-48). 대약진운동의 참담한 실패로 마오쩌둥이 물러나고 1959년에 국가주석에 오른 류사오치는 기술과 전문성을 중시하고 생산성 증대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인민대중을 위한 실사구시의 노선은 이데올로기 앞에서 무력했다. 1960년대 중국은 실용적인 전(傳)이 수정주의로 매도당하면서 패배하고 이념적인 홍(紅)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마오쩌둥은 문화혁명을 촉발시켜 폭력적인 홍위병들을 선동하고 사회적 무질서를 조장하며 권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당시 북한의 정세는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가 전개되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965년 말에 박금철의 처인 서채순의 부고기사가 『로동신문』에 게재되었다. 이러한 파격은 갑산파의 위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박금철에 대한 개인 우상화와 혁명전통 다원화가 시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금철의 처인 서채순의 장례식과 이를 보도한 『로동신문』의 게재된 기사의 비중은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1930년대 중반 함남 갑산에서 박금철과 함께 한인민족해방동맹에 참여하여 항일활동을 한 서채순은 핵심

조직원이 아니었으며 오랜 기간 병마에 시달리다 사망하였다. 박금철과 함께 한 인민족해방동맹을 이끌다가 1960년에 사망한 박달에게 할애된 부고기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파격적인 그녀의 부고기사는 박금철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다(조우찬 2016b, 202-206).

갑산파의 혁명전통의 다원화 시도를 차단하고 혁명전통의 유일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1966년 하반기에 문학예술 영역에서 김일성에 의해 촉발된 혁명전통 논쟁이었다. 천세봉의 소설에 대해서 김일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혁명전통 논쟁이 불거졌다(김일성 1983a, 13-28). 『안개 흐르는 새 언덕』에 대한 김일성의 비판은 북한 문단의 분위기를 일거에 바꿔놓았다(조우찬 2016b, 210-211). 이 작품에 대해서 김일성이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는 혁명전통의 유일성을 훼손했기 때문이었다. 비슷한 시기인 1966년 10월에 열린 제2차 당대표자회 마지막 날에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당비서제가 도입되면서 권력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이 회의에서는 군부가 중용되고 경제 관료들의 퇴진이 두드러졌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 상무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제를 폐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을 설치하고 김일성을 총비서로 하고 각 비서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2015, 911). 한편, 갑산파 숙청 직전인 1967년 봄부터 『로동신문』, 『근로자』, 『조선예술』, 『천리마』, 『조선문학』 등에는 항일유격대의 활동과 혁명전통의 유일성이 유례없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67년 5월에 비공개로 열린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박금철을 비롯한 갑산파는 불시에 제거되었다.

## V. 맺음말

1960년대 중반에 북한 경제는 혼란에 직면하였다. 이미 1960년대 초에 대중동원을 통한 양적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 1950년대 말에 양적 성장을 견인하면서

각 산업 부문별 질적 성장을 이끌었던 집단적 기술혁신운동의 성과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동안 경제적 성과의 바탕이었고 대중동원의 기제로 활용되어 온 천리마운동도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박금철은 활용한 개혁안은 일부 산업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실험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다. 속도와 목표에 대한 현장의 분위기를 감안하고 효율성 증대에 주목한 박금철과 갑산파는 ‘반당수정주의자’로 지목되어 숙청되었다. 이 무렵 북한 사회는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를 차단하는 혁명전통의 유일성 확립 시도가 전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 혼란의 수습 방안은 혁신적 방식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한계가 드러난 소비에트식 경제발전 방식에서 초래된 경제 혼란의 수습 방향은 수정주의 이론을 유포한 ‘반당수정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을 수정주의자로 내모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경제노선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의 양상보다는 박금철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들 가운데 하나로써 리베르만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본 연구의 함의는 첫째, 혁명전통 유일성 확립에 대해서 오히려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를 전개한 박금철과 갑산파가 전격적으로 ‘반당수정주의자’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박금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서 김일성의 권력 강화를 위한 빌미로 이용하려는 공세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둘째, 갑산파 숙청과 관련한 변화 양상은 경제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정치는 물론 문화 예술의 변화와도 유기적으로 함께 맞물려 있었으며 연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박금철과 갑산파 일원에게 일방적으로 제기된 다양한 혐의들 중에는 수정주의 이론의 유포 외에도 권력 남용과 개인우상화 등이 포함되었다. 결국 박금철에 대한 비난은 혁명전통의 유일성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박금철을 ‘반당수정주의자’로 내몬 것은 결국, 혁명전통의 유일성 확립을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갑산파를 숙청함으로써 혁명전통의 유일성을 확립하고 개인우상화 구축에 더욱 몰두해나갔다.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김상학, 1955. “중공업은 국가 공업화의 기초,” 『근로자』 제11호.
- 김일성, 1968. “인민경제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국가계획위원회당총회에서 한 연설(1965년 9월 23일).”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3a. “혁명주제작품에서의 몇가지 사상미학적 문제: 예술영화 『내가 찾은 길』 첫 필름을 보고 영화예술인들과 한 담화(1967년 1월 10일).” 『김일성저작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3b.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7년 5월 25일).” 『김일성저작집』 제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2.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1967년 6월 15일).” 『김정일 선집』 제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리석심, 1961.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와 균형문제.” 『근로자』 제11호.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1. 『조선전사 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1979. 『조선로동당략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경공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9.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편집국, 1968.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 대고조를 앙양시키자.” 『근로자』 제5호.

### 2. 국내 및 해외 자료

- 강빈구, 1966. “『리베르만』 論爭과 實際.” 『경제논집』 제5권 1호.

- 강호제. 2007. “북한의 기술혁신운동과 현장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북한 과학원의 현지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고현욱. 1993. “경제자립노선의 업적과 한계.” 최완규 외.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국토통일원. 1980.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II』. 서울: 국토통일원.
- 김광수·박만수. 1994. 『북한경제』,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 김근식. 1999. “북한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동혁. 2017. “소련 경제학계의 ‘리베르만 논쟁’과 그 결과.” 『역사학보』 제236집.
- 김상학. 1955. “중공업은 국가 공업화의 기초.”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 김연철. 1996.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연철. 2001.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 로버트 스킨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2015.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서울: 돌베개.
- 박형준·김태영. 1994. “북한의 과학기술: 기술혁신의 현황과 한계를 중심으로.” 김남조 편. 『북한사회론』, 서울: 나남출판.
- 연하청. 1994. “북한경제의 운용과 정책 결정.” 이태욱 편. 『북한의 경제』, 서울: 을유문화사.
- 오승렬. 2002.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 이성봉. 1999. “북한의 자립적 경제발전전략과 김일성체제의 견고화 과정: 1953-1970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승현. 1997.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 건설전략 연구: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훈. 2003. “경제발전전략.”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국가전략』, 서울: 한울.
- 이정철. 2002a.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2b. “북한의 경제 발전론 재론: 1960년대 경제조정기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권 50호.

- 이태섭. 2001a. “북한의 집단주의적 발전전략과 수령체제의 확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1b. 『김일성 리더십 연구: 수령체제의 성립 배경을 중심으로』, 서울: 들녘.
- 이태섭. 2009.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서울: 선인.
- 이홍섭. 1997. “구소련의 개혁과 체제변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기방. 1992. “소련 정치체제의 변화와 정책: 평등과 효율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여천. 1997. “구소련의 경제체제.” 한국비교경제학회 편, 『비교경제체제론』, 서울: 박영사.
- 정형근. 2002.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과 북한.” 『현대북한연구』, 제5권 제2호.
- 조동호·김은영. 2004.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1960~70년대 동유럽 경제개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 조우찬. 2016a. “북한 갑산과 연구: 박금철과 구성원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1호.
- \_\_\_\_\_. 2016b. “1960년대 중반 북한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와 혁명전통 논쟁: 박금철의 처 서채순 관련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0권 제1호.
- \_\_\_\_\_. 2017. “1967년 북한 갑산과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의 종결.” 『현대정치연구』 제10권 제1호.
- Kornai, Janos. 1992. *Economics of Shortage*. Amsterdam: North-Holland.
- Kornai, Janos.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J.: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owell, Dittmer. 1988. *Liu Shaoqi an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N.Y.: M.E. Sharpe.
- Qui, Jin. 1999. *The Culture of Power: The Lin Biao Incident in the Cultural Revolu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hen, Zhihua and Yafeng Xia. 2012. “China and Post-War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1953-1961”: The North Korean Opposition Movement of 1956.”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 Project, Working paper, No. 4(May).*

1972. “이것이 소련이다(50), 경제개혁(1),” 『매일경제』(8월 21일).

투고일: 2018. 02. 19. 심사일: 2018. 03. 15. 게재확정일: 2018. 04. 03.

## The Economic Crisis Aspect of Nor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Uniqueness the Revolutionary Tradition in the Mid 1960's

- Focused on the Reprobation of the Reform and the Background of the Purge of *Kapsanpa* (Kapsan-faction) -

Cho, Woo Chan |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 economic crisis and the purge of *Kapsanpa* (Kapsan-faction) in North Korea in the mid 1960's. Park Geum-cheol utilized Liberman's Reform of the Soviet Union for the overcoming of the economic depression of North Korea. At that time, *Kapsanpa* was stipulated as 'anti-party revisionists'. These criticisms were used as a basis for removing the *Kapsanpa* who did not agree with the uniqueness of the revolutionary tradition.

A few months before the purge of Pak Geum-Cheol occurred, the uniqueness of the revolutionary tradition was greatly strengthened in all areas such as North Korea's politics, economics, society, literature etc. The exclusion of the reform and the purge of the *Kapsanpa*, which has the "anti-party revisionist" yoke, is closely linked with the establishment of uniqueness of the revolutionary tradition.

---

**Key Words** | Pak Geum-Cheol, *Kapsanpa* Purge, Attempt to Diversify the Revolutionary Tradition, Planned Economy, Liberman's Reform, Revisionism, Uniqueness of Revolutionary Tradition